

경기·영서 목불 제작 1인자... S자형 웃주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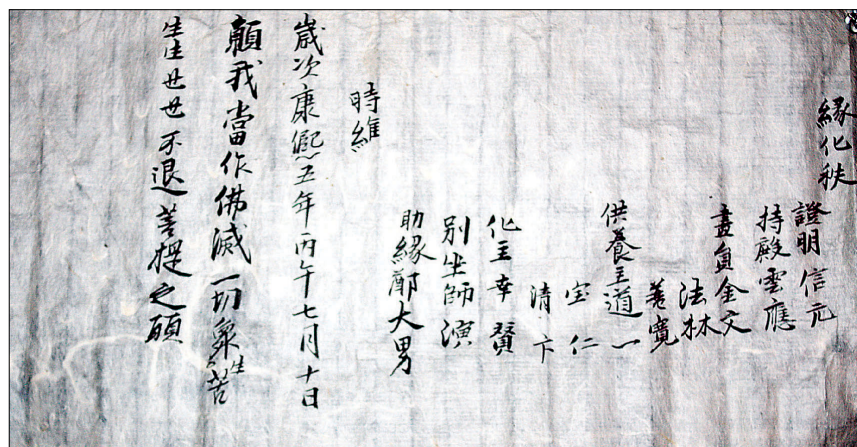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④ 금문(金文) 스님



17세기 후반 조각승 금문 스님의 대표작 안성 봉덕사 석가여래좌상. 나무로 만든 목조불상으로 두꺼운 대의가 오른쪽 어깨에 완만하게 사선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안성 봉덕사 봉안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조각승들. 불상 조성을 담당했던 스님으로 금문 스님이 기록돼 있다.

17세기 후반에 호남의 색난(色難) 스님, 영남의 승호(勝湖) 스님 등과 같은 시기에 중부지방인 경기(京畿)와 영서(嶺西)에서 활동한 금문(金文)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혜희(惠熙, 慧熙)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彫刻僧)이다. 금문 스님은 스승 혜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나무로 불상을 제작하면서 불교공예품 등을 중수했다. 현재 금문 스님이 우두머리가 되어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3건 20여 점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금문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등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불화 화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금문 스님이 제작한 가장 오래된 작품은 혜희 스님을 도와 1655년에 충북 보은 범주사 원통보전에 봉안한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이다. 그때 금문 스님은 불상 제작에 참여한 21명 가운데 17번째 언급되어 불상 제작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1662년 정월에 인조의 손자이자 소현세자의 셋째아들인 경안군 이씨와 그의 부인 허씨, 경자생막씨(庚子生朴氏)와 노씨(盧氏), 윤씨(尹氏) 등의 만수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궁인(宮人) 노예성(盧禮成)이 발원한 전남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혜희 스님과 만들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중형불상을 최소한 5명 이상이 제작하지만, 이 보살상은 특이하게 두 명이 제작했다.

왕실에서 발원한 불상 제작에 혜희 스님이 금문 스님을 데리고 같이 작업한 것을 보면 가장 솜씨가 뛰어난 제자였을 것이다. 그 후 금문 스님은 수화승(우두머리)이 되어 제자들과 1666년에 경기 안성 봉덕사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을 제작하고, 1668년에 승일 스님이 제작한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제작에 참여하는데, 승일 스님은 혜희 스님과 조각승의 계보가 달라 금문 스님이 일시적으로 불상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76년에 혜희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전북 완주 대둔산 안심사 화강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금문 스님은 1686년 4월에 수화승으로 강원 횡성 봉곡사 반야암 관음보살좌상을 조성했다.

또한 금문 스님은 1701년에 서울 강남 봉은사 범왕루 목조불패를 새로 고치고, 1703년 5월에 경북 상주 운봉사 괘불(문경 김통사 봉안) 조성 시 복장시주(腹藏施主)로 참여하였으며, 6월에 부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을 중수하면서 개금하였다.

금문 스님은 1706년에 경기 안성 칠장사 지장전 불상을 2월 2일에 시작하여 5월 21일에 완성하였다. 17~18세기에 새로 명부전에 불상을 30여 점을 봉안하는데, 13명의 조각승이 대략 세 달 반이 걸려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금문 스님이 어느 지역 사찰에 주석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혜희 스님이 1650년경에 계룡산에 거주한 기록이 밝혀져 같은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17세기 후반 활동한 조각승

호남 색난, 영남 승호와 다른 계보

목불을 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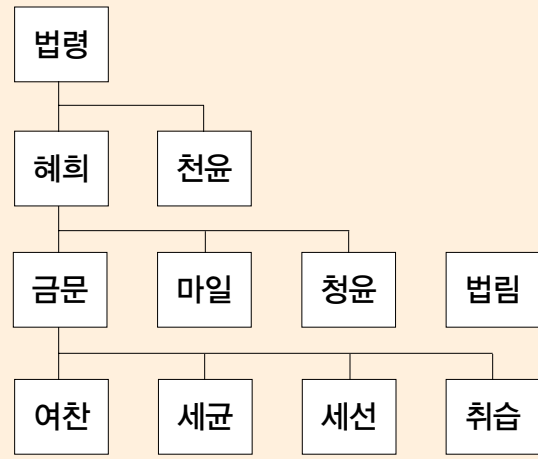
문헌 통해 활동 시기·지역 가늠

경기와 영서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각승 혜희를 계승한 직계 제자

상주 운봉사 괘불 조성 시주

금문스님 계보의 조각승



높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금문 스님은 1635년경에 태어나 출가한 후 수련기를 거쳐 혜희 스님과 1655년에 충북 보은 범주사 원통보전 불상과 1662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보살상을 조성하고, 1666년에 수화승으로 안성 봉덕사 봉안된 불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금문은 1668년에 수화승 승일(勝日) 스님과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불상을, 1676년에 수화승 혜희와 전북 완주 안심사 화강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이후 수화승으로 1686년에 강원 횡성군 봉곡사 반야암(般若庵) 목조관음보살좌상(원주 구룡사 봉안)을 조성하고, 1701년에 서울 봉은사 목조불패를 개조하였으며, 1703년에 부산 기장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을 중수·도금하였다.

그리고 금문 스님은 1706년에 경기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을 만들었다. 금문 스님은 주로 혜희 스님과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혜희 스님이 살았던 충남 공주 계룡산 근방에 거주하면서 경기와 충청도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하였다. 1703년 이전에 종이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嘉善)의 공명첩을 이름 앞에 쓴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명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문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법령(-1615-1641-)→혜희(-1640-1677-)→금문(-1655-1706-), 마일(-1655-1701-), 청운(-1684-1716-)→세균(-1703-1730-), 여찬(-1706-1746-)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문은 경기 안성, 충북 횡성, 전북 완주, 경북 김천, 부산 기장 등의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활동 지역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문 스님이 만든 안성 봉덕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86.4센티미터로, 1933년 조만해 스님이 평택 포석면 수도사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이 1:0.35의 비율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표현되고,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하고 있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등갈래 맞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함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각지고 정리된 느낌을 준다. 그 세부표현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혜희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마일과 청운 등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이다.

금문 스님이 만든 원주 구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가 61센티미터로, 중앙에 화불을 장식하여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고,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으로 장식된 높고 커다란 보관(寶冠)을 착용하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며, 살짝 뜬 눈은 눈꼬리가 위로 약간 올라가 있고, 콧등이 평평한 코는 삼각형을 이루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 보살상은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보살상보다 어깨와 무릎 폭이 좁은 편이다. 양손은 손목에 끼우게 제작되었고, 오른손은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등갈래 맞대고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고, 왼손은 손등을 무릎 위에 얹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상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처리는 두 가닥의 주름이 완만하게 펼쳐져 흘러내리고, 가장 안쪽의 대의 끝단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마무리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보살상의 대의 처리는 17세기 후반에 혜희(惠熙)의 계보를 이은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요소이다.

금문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가 오른쪽 어깨에 걸쳐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고,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의자락 상단에 사선 방향으로 접힌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1684년에 마일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승인 혜희 스님이 제작한 목조불상에서는 오른쪽에 걸친 대의자락의 끝자락이 완만하게 늘어졌고, 왼쪽 어깨에 수직으로 흘러내린 것 부분 상단에 자연스럽게 접혀 있어 금문 스님이 불상 제작에서 다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문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하반신에 걸친 옷자락도 끝부분이 각진 형태를 하면서 복부에 앞으로 넓게 펼쳐진 옷자락 끝단이 S자형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웃주름 처리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의 계보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이다.

그밖에도 금문 스님은 암자에 봉안한 관음보살상을 주로 만들었고,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경기와 충청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금문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충북 괴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 충북 제천 무암사 목조여래좌상, 강원 백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경북 봉화 중대사 목조보살좌상, 경북 고령 반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경북 문경 대성암 목조보살좌상이나 해국사 목조삼존불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청국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품가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룡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神通력과 8가지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입니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권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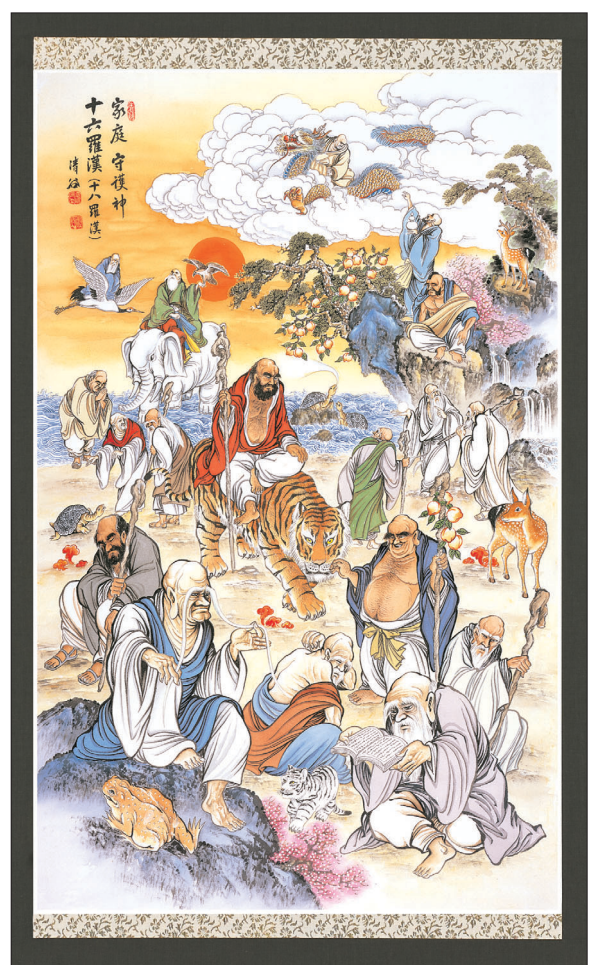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 이신 청국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재는 족자 완성품임.)